

제약업계 채용 문 ‘활짝’... 구직 큰 장 선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하반기 채용의 문을 활짝 연다. 상반기보다 채용을 늘리고,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인재를 꾸준히 충원하는 추세다. 하반기 열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역시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채용한 인력은 2900명에 달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올해 하반기 6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상반기(40여명) 채용 인원보다 1.5배 수준으로 인력 채용을 확대한다.

종근당은 하반기 14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포함 인력 충원이 필요한 전 부문이 대상이다. 종근당은 지난 상반기 240여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하반기 정확한 인원을 확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상반기보다 채용 늘리고 수시채용 추세

정하진 않았지만 상반기와 비슷한 100여명 수준을 채용한다. 한미약품은 상반기 수시채용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력을 충원해 총 164명 가량의 인력을 채용했다.

GC녹십자는 상반기 신입 60여명을 포함해 총 90여명을 채용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C녹십자는 지난해 하반기 80여명을 충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한 JW중외제약은 아직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산업 채용의 큰 장도 선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는 현장 면접 중심의 참여기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심층 면접부스 참여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17개사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총 47개 참여기업 중 33개사가 일반 상담부스로 참여하고, 11개사가 면접과 상담을 병행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현장 면접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현대약품 등 기업은 현장 면접에서 즉시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여 구직

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9개사는 이번 채용 박람회 참여자들에 서류 면제 혜택을 주고 바로 면접에 들어간다. 구주제약, 삼진제약 등 4개사는 1차 면접 등 일부 채용 면접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일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서류와 1차 면접을 면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심층면접부스를 요청하는 것은 채용 박람회를 인재 채용의 실질적인 장으로 여긴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채용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활발한 채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용박람회의 무료 부스 신청은 오는 19일 최종 마감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병사 휴대전화 시범운영... 긍정적 효과 ↑

소통여건 개선·심리적 안정에 도움
체력 관련 장기적 데이터 비교 필요

지난해 4월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간에 일부 병이 도박 및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국방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6일 한국국방연구원의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소통여건이 개선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 36만여명(훈련병 제외)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간부(장교·부사관)와 병 간의 소통도 활성화 됐다는 군 내부 인식도 많았다.

일선 부대에 고충상담을 받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병의 79%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병영생활전문상담

관과 국방헬프콜센터에 접수된 고충상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감소 비율은 ▲복무 부적응 ▲심리·정서 ▲이성과 진로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와 단절된 병영생활에서 외부로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은 군 생활 적응과 만족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의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체력검정 결과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특급 13.8%에서 15.1% ▲1급 23.2%에서 22.9% ▲2급 22.4%에서 22.6% ▲3급 23.2%에서 21.9% ▲불합격 17.4%에서 17.5%의 변화를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간부들로부터 “병의 체력단련 할애 시간이 줄고 있어,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해야 할 것 같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세계 첫 췌장암 조기진단키트 유럽서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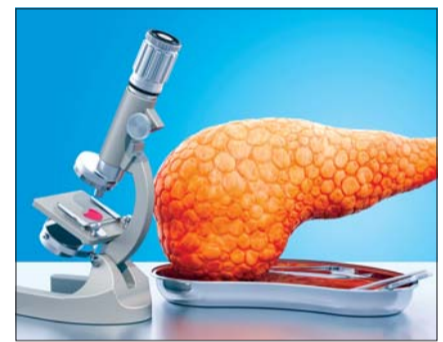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기술
연내 최종취득 계획... 하반기 임상 돌입

JW홀딩스가 개발한 췌장암 진단키트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특허를 받았다.

JW홀딩스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기술에 대해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JW홀딩스는 향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 대상 개별 진입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특허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JW홀딩스의 원천기술은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현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 암의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연세대 백용기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았다.



췌장암은 국내에서만 매년 약 66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또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11%로 전체 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난치성 질환이다. 그러나 췌장암은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췌장암 말기 환자에서 주로 반응하는 암 특이적 항원 ‘CA19-9’를 검사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초기 환자에서 나타나는 ‘CFB(보체인자B)’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에서 JW홀딩스가 유일하다. JW홀딩스는 췌장암 조기진단 원천기

술과 관련해 2016년 국내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2018년 일본, 올해 5월 중국 특허를 획득했고, 현재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JW홀딩스는 현재 자회사 JW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 CFB를 포함하는 다중 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와 진단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시제품 성능 평가 임상 진행 후 탐색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 특허 대상국가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JW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과 함께 혁신적인 체외진단 인프라를 구축해 진단 분야 미중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인 모도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췌장암 치료 및 진단 관련 시장은 2015년 17억3000만 달러(약 2조원)에서 연평균 13% 성장해 2020년 31억8700만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세경 기자

“여드름 흉터, 복합 치료가 효과적”

삼성서울병원 이종희 교수 연구팀
레이저-줄기세포배양액 치료 병행

여드름이 남긴 흉터를 없애는 데 레이저 치료와 줄기세포배양액 치료를 병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종희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흡연 등 치료 이외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요소를 배제한 뒤 여드름 흉터가 있는 환자 15명을 모집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어 1주일 동안 얼굴 한 쪽 볼에 인체줄기세포배양액과 히알

루론산 복합제품을, 다른 쪽에는 히알루론산 제품만 바르도록 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줄기세포배양액을 바른 쪽의 경우 흉터 크기가 치료 시작 후 두 달까지 처음보다 평균 23.5% 줄었다. 바르지 않은 쪽 볼은 15.0%로 8.5% 차이가 났다. 모공 크기도 큰 변화를 보였다. 치료 2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줄기세포배양액을 바른 쪽의 모공 크기는 평균 37.6% 감소하여 바르지 않은 쪽(15.9%)과 대조를 이뤘다.

줄기세포는 탁월한 재생 능력이 있지만 물에 잘 녹는 성질 탓에 피부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레이저 치료와의 복합요법이 흉터 및 모공 개선에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세경 기자

현대그린푸드-SCL 헬스케어그룹 환자 식단서비스 MOU

현대그린푸드 의료서비스기업 SCL 헬스케어그룹과 손잡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식을 활용한 식단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그린푸드는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하나로의료재단 종로본원에서 SCL 헬스케어그룹과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과 이경률 SCL 헬스케어그룹 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Smart Health Care Service) 모델 구축 ▲식단을 활용한 다각도의 임상 연구 추진 ▲고객의 건강 강화를 위한 유·무형 서비스 제공 등

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는 특히,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건강식을 활용한 식단 관리와 치료·운동요법을 병행하는 ‘통합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바이오마커(bio-marker,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생체 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해, 제품의 효과를 검증하는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헬스케어푸드(종합 건강식)를 연구·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단계급식뿐 아니라



16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왼쪽)과 이경률 SCL 헬스케어그룹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B2C 제품 개발에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헬스케어푸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CL 헬스케어그룹은 임상시험 수탁기관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하나로의료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